

제목: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사, 하늘의 안식

이사야 49 장 4-5 절: [4]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게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5]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데도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우리가 원했던 열매가 맺힌것만을 감사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기뻐할수 있는 삶을 살수 있길 원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부터 나올까요? 감사한 마음이 가득할 때 안식은 저절로 됩니다. **감사한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참다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선지자중에 가장 큰 선지자로 칭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가장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여호와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41 장에서 66 장까지는 여호와의 종인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중에서 이사야 49 장 5 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씀합니다.**

이사야 49 장 5 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데도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리고 4 절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일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를 말씀합니다.**

이사야 49 장 4 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게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위의 두 구절이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다는 것은 사도행전 13 장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 장 47 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구절은 **하나님의 종인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사도바울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말씀의 다음 구절인 이사야 49 장 6 절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씀한것입니다.

이사야 49 장 6 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본문말씀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9 장 5 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데도**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일은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모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인간의 관점으로 본때, 주님은 완전히 실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결과로 야곱의 지파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3 장 21 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4 장 27 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열두 제자 중 하나는 주님을 팔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 장 4 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하는 일의 열매는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도 성취된거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속에 낙담하고 그 배신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면서 헤매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49 장 4 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게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현대인의 성경 버전: 그러나 나는 '내가 공연히 수고하였으며 쓸데없이 내 힘을 다 쏟았습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새번역: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 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오히려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습니다.

공동번역: 그러나 나는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헛수고만 하였다. 공연히 힘만 빼었다." 그런데도 야훼만은 나를 바로 알아주시고 나의 하나님만은 나의 품삯을 셈해 주십니다."

"판단" (개역: 신원) ἵ: ὁρῶν(미쉬파트) = '심판, 재판, 공정, 공의, 법령, 관습, 방식

위의 구절은 **비록 야곱의 지파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 못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원망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불만을 품지도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태도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의 일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건에 직접 관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라던가 어떤 사람이라던가 어떤 것과도 직접 관계를 맺지 말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고 만나지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나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에게 여러분의 초점을 두고 직접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런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과 분노가 치솟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만 직접 관계를 맺는다면, 비록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기뻐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만을 관심하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으면, 어떤 것을 얻든지 잃든지 그것들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49 장 4 절: ...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본문말씀(사 49:4-5)을 그대로 설명해주는 사건이 신약에 한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1 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의 태도와 하신 말씀이 본문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 장 27-30 절: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 장의 앞부분에 기록된 일은 전부 마음이 아픈 일들 뿐입니다.

마태복음 11 장 2-3 절: [2]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나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 질문은 “당신이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이 이렇게 묻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마태복음 11 장 18 절: [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안먹어도 욕하고 먹어도 욕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던지 사람들은 비평했습니다.

마태복음 11 장 20-24 절: [20]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21]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룩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도 않고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마태복음 11 장의 앞부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심받고 회방을 받고 버림받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생활속에서 하는 일 가운데서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이런 일에 부딪힌다면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태도가 주님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11 장 25 절: [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마음에는 어떤 쓰라림도 험기도 원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 없든 의심을 받고 회방을 받고 버림을 당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위의 말씀에 주님의 고백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일이 생기고 감사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유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회방을 받고 버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 장 26 절: [26] 율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태복음 11 장 26 절 (새):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마태복음 11 장 26 절 (공):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 장 26 절 (KJ): 그러하옵니이다. 아버지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마태복음 11 장 26 절 (현):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이니 아버지의 원하신 뜻이니 아버지의 선함이니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라고 고백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사람들 관계하지 않고 아버지만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주님의 마음이 전달된다면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버지’ 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깊이 감사하시면서 여전히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볼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롭고 선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율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당해도 마음속 깊은 곳을 부터 ‘아버지여,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속이 상하는 일을 많이 당할 때, 그냥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낙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아버지여 율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주동안 묵상하기>

1.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사람에게 해를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과연 나는 하나님께 ‘아버지여,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 할 수 있는가?

2. **마태복음 11 장 27-30 절:**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 이 구절에 나오는 다음 단어들에 무엇이인가?
 온유, 겸손, 안식(쉬), 멍에
- 왜 주님의 짐은 가벼운가?